# 가성소다 제소 긍정판정

## 12월 최종판정 관심 집중 … 2차에서 번복가능성 높아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소다협회가 제소한 액체가성소다에 대해 산업피해(긍정)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 김완순교수)는 지난 8월9일 무역위원회을 열어 한양화학이 주축이된 소다협회가 제소한 액체가성소다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에서 긍정판정을 내림으로써 관련업계에서는 오는 12월10일경에 나올 최종판정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7명의 위원중 4명이 참석 했으며 일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서 8월15일 덤핑마진율을 판정했고 무역위원회가 긍정판정을 내림에 따라 재무부는 무역위원회의 의결서을 받은지 한달 이내에 관세심의위원회을 열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마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판정하게 되는데 지난 관례에 따르면 긍정판정에 관세청이 제출한 범위내에서 마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액체가성소다 덤핑률현황** (단위 : %)

| 구 분 | 제소마진율 | 관세청덤핑률 |
|---|---|---|
| 중 국 산 | 133 | 133.0 |
| 미 국 산 | 554 | 89.5 250 |
| 벨 기 에 산 | 372 | 84.9 |
| 프 랑 스 산 | 643 | 190.4 |

관세청이 부과한 덤핑마진율은 중국산이 133% 제소에 133%, 미국산이 554% 제소에 89.5~250%, 벨기에산이 372% 제소에 84.9%, 프랑스산이 643% 제소에 190.4%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판정에서 이같은 마진율이 유지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최종판정시 긍정판정이 나오더라도 덤핑률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최종 판정은 덤핑률이 11월12일, 산업피해 판정이 12월9일, 최종 확정판정이 95년 1월경에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 최종판정시 번복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액체가성소다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지난 93년8월부터 94년 초까지의 자료가 판정의 근거로 제시됐으나 확정판정시에는 3/4분기까지의 자료가 판정의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여 현재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이같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번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수입기업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선경 등 대부분의 관련기업들은 최종판정까지는 현상태를 유지한 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제소국인 수출국 생산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선적을 거부하는 등 물량공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새로운 수입선확보 마저 어려워 최종판정에서도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국내 관련산업은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4/10/3>